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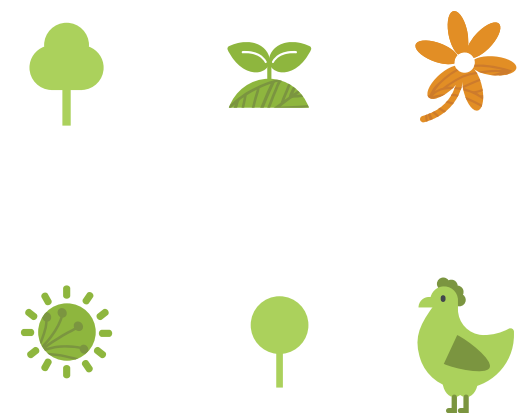


A guide to the cage-free system for
laying hen farms

산란계 평사 전환 가이드북



산란계 농장, 평사사육에 대해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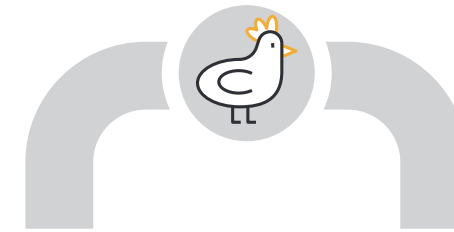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한국동물복지연구소
KOREAN INSTITUTE FOR ANIMAL WELFAR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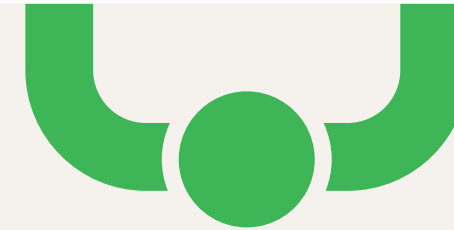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한국동물복지연구소
KOREAN INSTITUTE FOR ANIMAL WELFAR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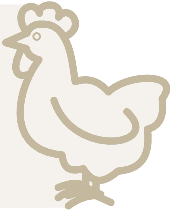


Contents



01. 가이드북 제작 취지	01
02. 책소개	02
03. 평사사육에 대한 질문	07
04.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29
05. 평사사육 전환 절차	32
06. 참고자료	37

1. 가이드북 제작 취지



안녕하세요?

이 가이드북은 산란계 평사 운영과 평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평사 사육에 대해 이야기되는 이유,
평사로 전환할 때의 고민거리,
방란 문제, 카니발리즘 등
평사 방식에 대해 농장주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실제 사례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산란계 평사 운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 올림

2. 책 소개



등장인물



김태산 58세

산란계 7만 수 케이지 농장을
25년째 운영 중



바우어 62세

케이지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다가
유럽에서 케이지가 금지되어
2018년부터 3만 수 평사 농장 운영 중



... 이 책은 무슨 책인가~?

... 이 책은 케이지를 평사로 바꾸면 좋은 점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 케이지로 달걀을 잘 생산하는데,
왜 평사사육으로 바꾸라는 건가요?

... 한국 농장은 달걀을 균질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이지요. 다만, 이전 달걀을 낳는 닭의
복지수준이나 더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역시 중요해요.
그러다보니 평사가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 평사가 좋다고?
같은 땅에서 키울 수 있는 두수가 확 주는데...

... 케이지에서 평사로 바꾸면 사육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케이지 사육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앞으로 동물복지 기준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지속가능한 산란계 운영을 위해서는 평사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평사가 방란, 카니발리즘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들었는데요?

... 그래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평사를 도입한 독일의 농장주들은 방란, 카니발리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3년 9월,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산란계 농장주 두 분과 함께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 탐방에 동행한 A형 배터리 케이지 농장주와 평사 전환예정 농장주 두 분은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요?

- ❖ 케이지에서 평사로 바꿀 때의 고민 거리
- ❖ 방란 문제 해결
- ❖ 카니발리즘 대응
- ❖ 깔짚, 헛대, 환기 등 적절한 환경
- ❖ 닭진드기 예방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한국의 농장주와 독일의 평사 농장주의 대화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 그래, 언제부터 평사를 운영하셨소?

... 유럽에서 법이 바뀌어 2008년부터 7년째 독일에서 평사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 유럽이 동물복지에 참 열심히더군요. 고생이 많았겠소.

... 처음에는 여기서도 혼란이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독일에 케어지는 거의 없지요.



... 평사에 대해 말들이 많던데...

... 혹시 평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소?
직접 운영해 본 입장에서 허심탄화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말이오...

... 그래,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되겠소?



3. 평사사육에 대한 질문



... 3.1. 방란



... 평사는 방란이 심각하다던데,
그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소?

... 방란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제거하기!
난상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방란 예방법

평사 사육으로 전환할 때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방란입니다. 방란은 곧 손실 발생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골치아픈 방란 문제 해결책과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히 산란을 시작할 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닭들이 난상에서 산란하는 것을 학습하지 못할 경우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주 사육장 내부 체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닥에 보이는 방란을 바로바로 제거하고 바닥에서 산란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면 바로 방해하고 난상에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방란이 오래 바닥에 방치되어 있으면 닭들이 쪼아 먹을 수 있고 이 행동은 전염병처럼 여러 닭들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방란을 줍고 있는 농장주

2 산란을 시작할 때에 바닥 어딘가에 어두운 공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난상이 아닌 바닥의 일부 공간이 다른 곳보다 어두우면 닭들이 그 곳에 산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밝은 조명을 임시로 제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3 증추장에서 또는 산란이 시작되기 전에 닭들이 난상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경험이 없으면 방란 행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산란이 시작되기 전에 난상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일부 산란계들은 새벽에 산란을 하는데 채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난상 외 공간에서 산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닭들이 난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른 새벽부터 천천히 조도를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난상 앞에 헛대를 제공하여 난상 안에 다른 산란계가 이미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산란계가 이미 있는 난상에 갑자기 다른 산란계가 들어온다면 둘 다 깜짝 놀라게 되고 난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란계는 난상 밖에서 다른 닭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난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치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난상 안 또는 아래에 외풍이 불고 있으면 닭들이 난상 안에서 산란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상 안이 쾌적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7 새벽부터 정오까지 산란 시간대에는 급이기를 돌려서는 안됩니다!

급이기 소리에 닭들은 시끄러워지고 분주해지며 이때 난상을 이용하지 않고 방란 행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난상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헛대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3.2. 깃털 뽑기, 카니발리즘



... 평사에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깃털 뽑기, 카니발리즘 문제를 일으킨다던데...

... 닭들이 스트레스받는지
세심히 살피는 노하우가 필요하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듯 하오.



깃털 뽑기, 카니발리즘 예방법

깃털 뽑기와 카니발리즘은 방란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입니다. 깃털뽑기는 사료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카니발리즘은 생산량 저하를 야기합니다. 농장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닭들의 복지도 훼손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되어야 합니다!

깃털 뽑기는 단순히 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사료를 먹거나 모래목욕을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깃털 뽑기 행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깃털 뽑기와 카니발리즘은 발현이 시작되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깃털 뽑기 문제가 관찰되는 사육장

깃털 뽑기와 카니발리즘은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닭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걸까요?!

- ❖ 사육장 내 부적절한 온도, 습도, 채광, 환기
- ❖ 지루한 환경
- ❖ 부적절한 영양소
- ❖ 사람에 대한 공포
- ❖ 닭진드기



❖ 사육장 내 부적절한 온도, 습도, 채광, 환기

깃털에 자연광이 직접 닿는 것은 시각이 뛰어난 닭들에게 매우 자극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광이 실내 사육장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어 닭들의 깃털을 비추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사육장 내 갑자기 밝아지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은 닭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기와 암기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어스름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루한 환경

사육장 내에 부리를 이용하여 탐색할 것이 없는 지루한 환경에서 깃털 뽑기의 문제 행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랄스톤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깔짚, 압축된 알파파 등을 제공하여 동종의 깃털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닭들이 미네랄스톤을 쪼고 있음



닭들이 압축된 알파파를 쪼는 모습



행동풍부화를 위한 장치



❖ 부적절한 영양소

사료에 충분하지 않은 미네랄, 비타민, 적절하지 않은 아미노산의 비율 등이 깃털 뽑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람에 대한 공포

산란계가 사람 대상 공포심이 많고 예민할 경우 매일 사람이 사육장 안을 출입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깃털 뽑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추장에서부터 사람에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람 대상 적응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물론 이때 닭들을 놀래키는 큰 소리나 큰 동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닭진드기

닭진드기가 닭의 깃털 위에 기어다니는 것은 시각적으로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깃털 뽑기 행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닭진드기는 닭에게 매우 심한 소양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필수로 예방되어야 합니다!

기타 스트레스 원인들!

1 방란도 카니발리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산란하는 닭의 경우 배설강이 다른 동종들에게 노출이 되며 이때 빨간 점막은 시각적으로 매우 큰 자극입니다. 이때 동종들은 배설강을 쪼게 되고 이는 곧 카니발리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방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난상 안이 너무 밝아도 카니발리즘을 유발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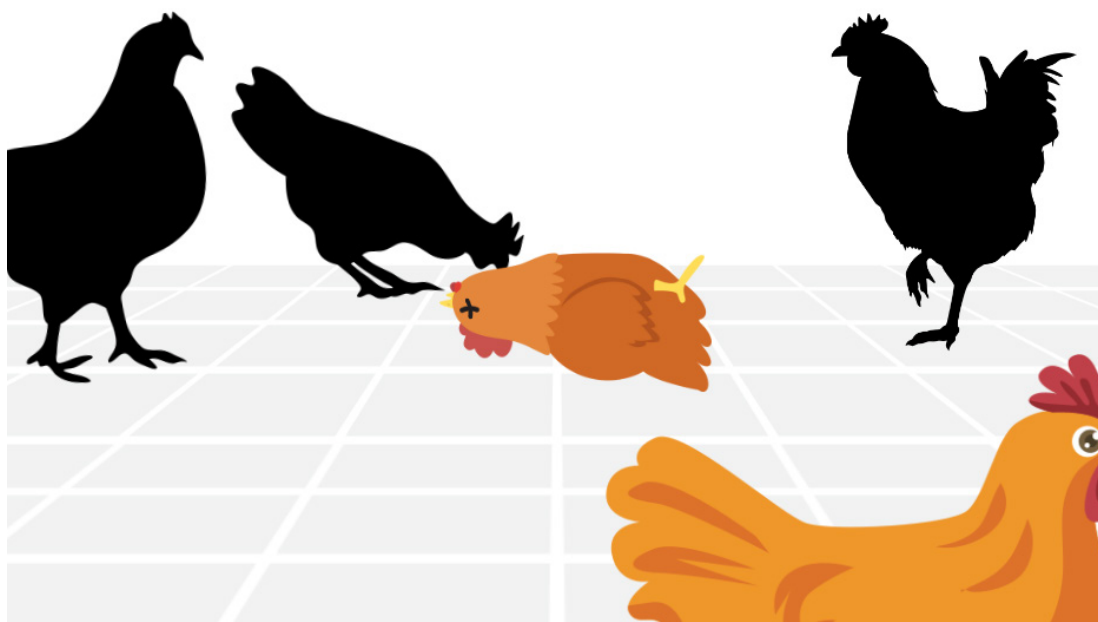
난상 안이 너무 밝은 경우에도 산란 직후 배설강이 동종에게 잘 보여서 쪼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상 안을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상 안을 어둡게 설정하여 산란 직후 돌출된 배설강이 다른 동종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3 사체 방치가 카니발리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체를 오래 두면 닭들이 호기심을 갖고 부리로 쪼아보다가 그런 행동이 카니발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체를 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닭들이 상처를 입고 출혈이 생기면 카니발리즘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시설 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경우 닭들이 다쳐서 출혈이 생기면 시각적으로 매우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동종들의 부리 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친 개체들이나 약한 개체들은 발견 즉시 동종들로부터 분리해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 3.3. 평사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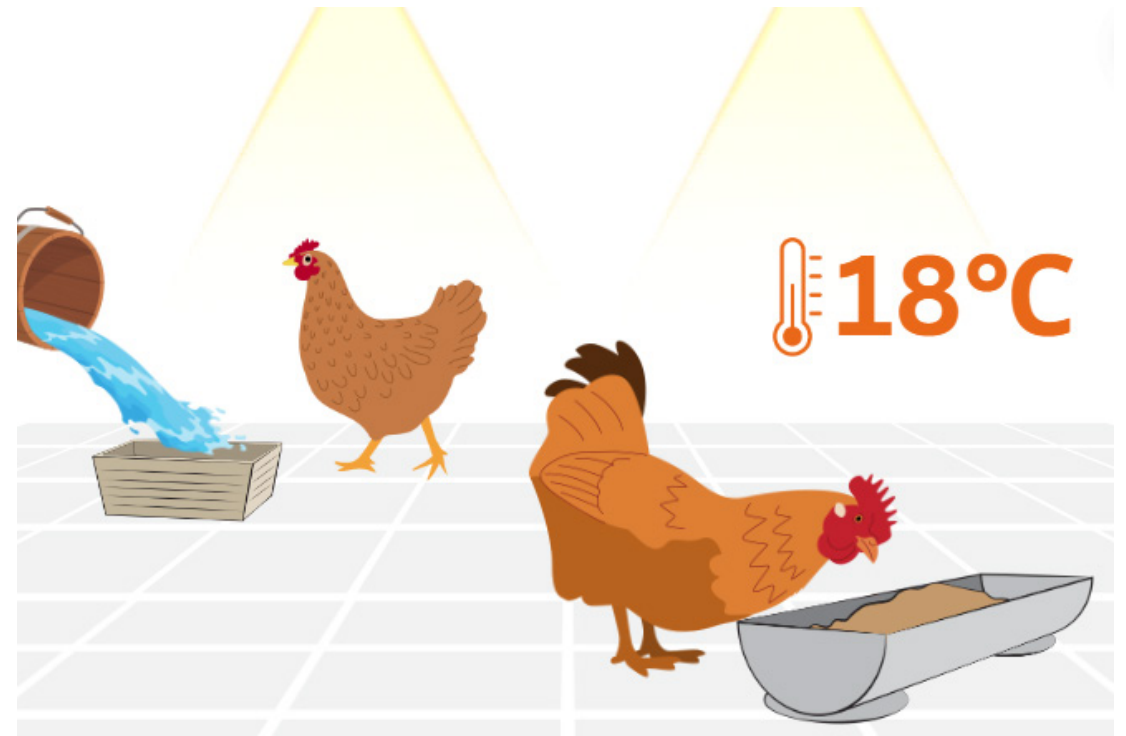
... 닭들을 케이지에서 꺼내 갑자기 풀어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소?

... 맞는 말씀이요.
그래서 종축 환경과 맞춰서 들어지요.



어떻게 해야 닭들이 평사에 적응할까요?

산란계가 중추장에서 농장으로 옮겨지는 경험은 동물에게 매우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식 경험이 부정적이 될 경우 동물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고 향후 생산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란계가 적응을 편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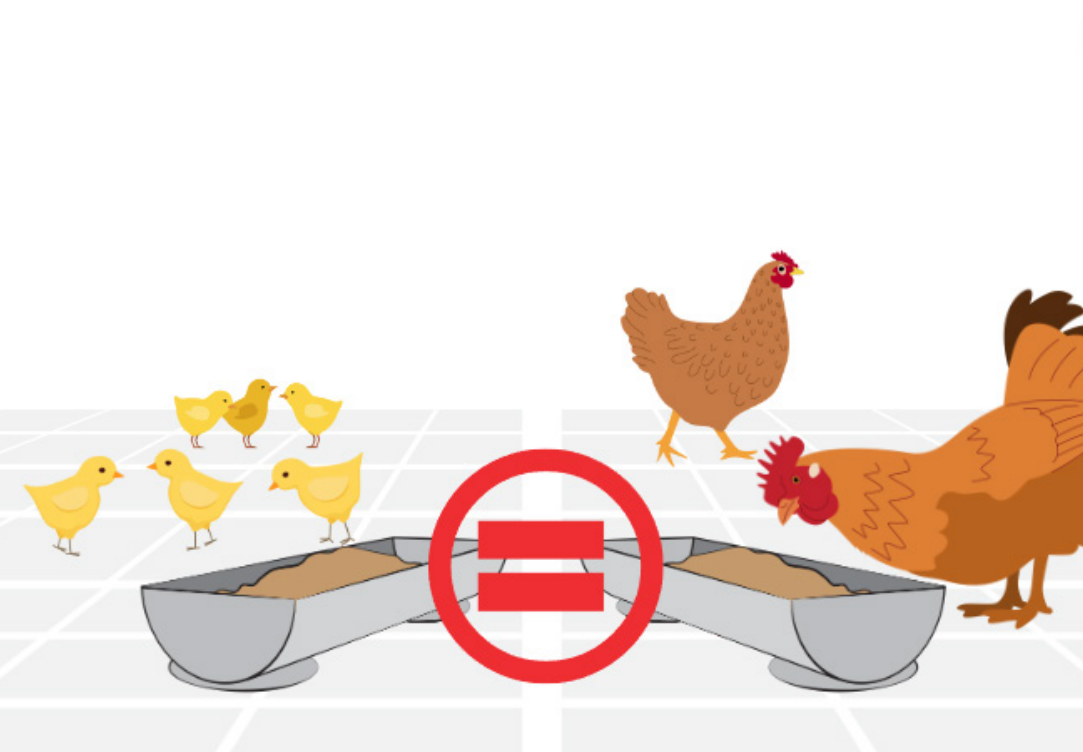


1 먹이, 물 등 모든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적합한 온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락한 온도는 약 18도이며 산란계가 입식하자마자 먹이와 물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입식한 첫째날은 다른 때보다 오래 채광을 제공해서 모든 닭들이 평사 사육 공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날부터는 종축장과 같은 명기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채광의 정도는 종축장보다 강렬할 경우 동물들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축장과 같은 채광(Lux)을 설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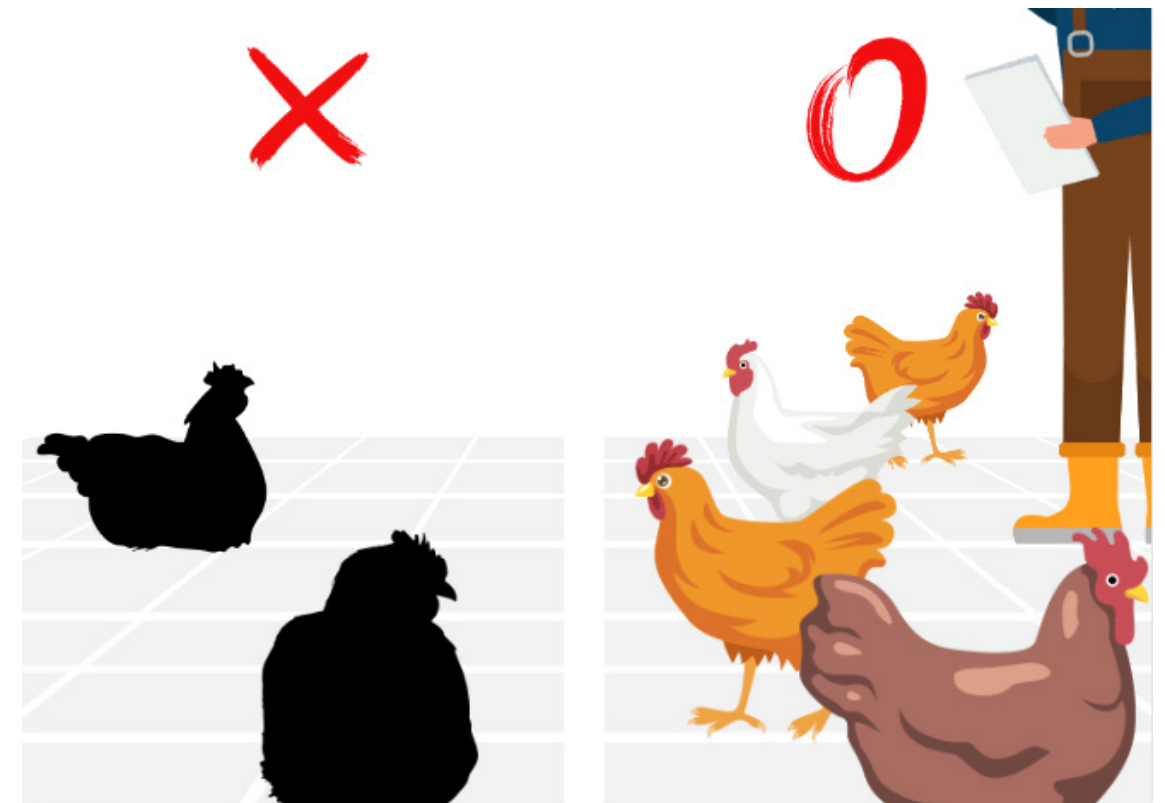


3 종축장에서 사용한 사료의 종류, 먹이 주는 시간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급이 방식은 종축장에서 입자가 큰 사료를 주다가 입식 직후 작은 입자(가루 형태)의 사료로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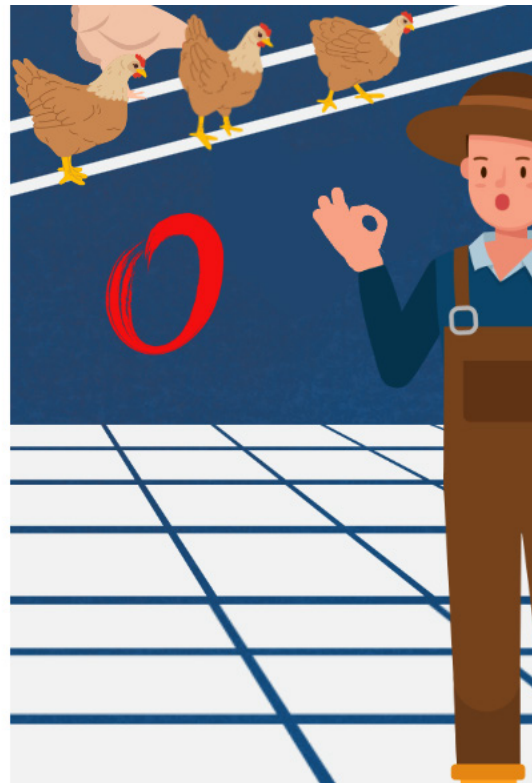
4 입식 직후에 동물들이 많이 움직이도록 사람이 사육 공간 내에 여러 번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닭들이 물과 먹이가 없는 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닭들이 수면을 취하기 직전에 닭들이 바닥에서 밤을 보내지 않게 해야 하며 켓대 위에 올라가도록 유도해줘야 합니다.

닭들이 바닥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바닥에서 방란하는 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닭들이 한 공간에 뭉쳐있지 않도록, 골고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3.4. 평사 환경



... 평사 환경은 보통 어떻게 맞추시요?

... 평사에서 신경쓰는 것은 깔짚, 난상, 켓대, 조명, 채광, 환기 등이라고요.



3.4.1. 깔짚

깔짚의 역할은 산란계가 바닥을 긁고, 모래목욕할 때의 필수 요소입니다. 톱밥이나 짚(벼짚, 보리짚 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모래나 흙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첫째, 깔짚을 보관할 때에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깔짚의 포장에 찢어져서 보관될 경우 오염되고 벌레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깔짚이 젖어있는 사육장에서는 소화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콕시듐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발바닥에 병변이 생겨 파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합한 환기와 조섬유가 높은 사료를 제공할 경우 건조한 깔짚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섬유가 높은 사료는 뭉지 않은 변을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급수기가 깔짚 위에 있지 않아야 하며 동물들이 물을 마시면서 깔짚으로 물이 떨어지는 시설이나 구조는 피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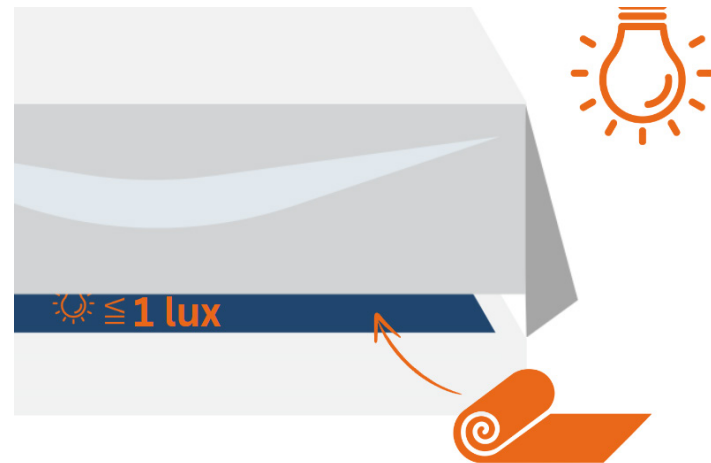
3.4.2. 난상

난상은 최대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하는 시간대에는 난상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산란 시간대에 급이를 해서 동물들이 분주해지고 시끄러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난상의 바닥에 인조잔디나 고무판을 제공하여 최대한 위생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난상 밖은 안보다 밝아야 합니다. 단, 난상 안이 완전히 어두울 경우 산란계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상 안은 최소 1Lux 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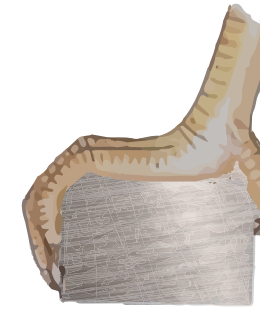
셋째, 난상의 수는 충분해야 하며 마리당 최소 125cm²의 면적이 권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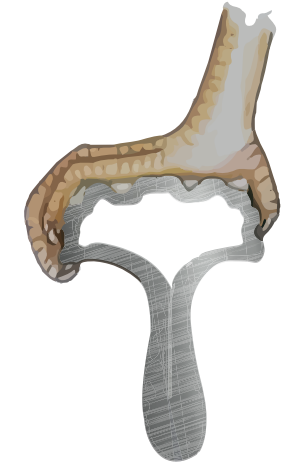
3.4.3. 헛대

난상은 최대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하는 시간대에는 난상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산란 시간대에 급이를 해서 동물들이 분주해지고 시끄러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장



모서리들은 날카롭지
말아야 하며
발가락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폭이어야 함



가장자리가 둥글고
발가락을 충분히
지탱해줄만큼
폭이 넓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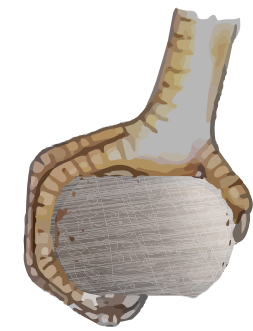
비권장



헛대가 너무 얇아서
발가락이
충분히 지탱되지 않음



헛대가 얇고
발이 편하지 않음



헛대가 얇고 발이
편하지 않으며
발톱이 길게 되는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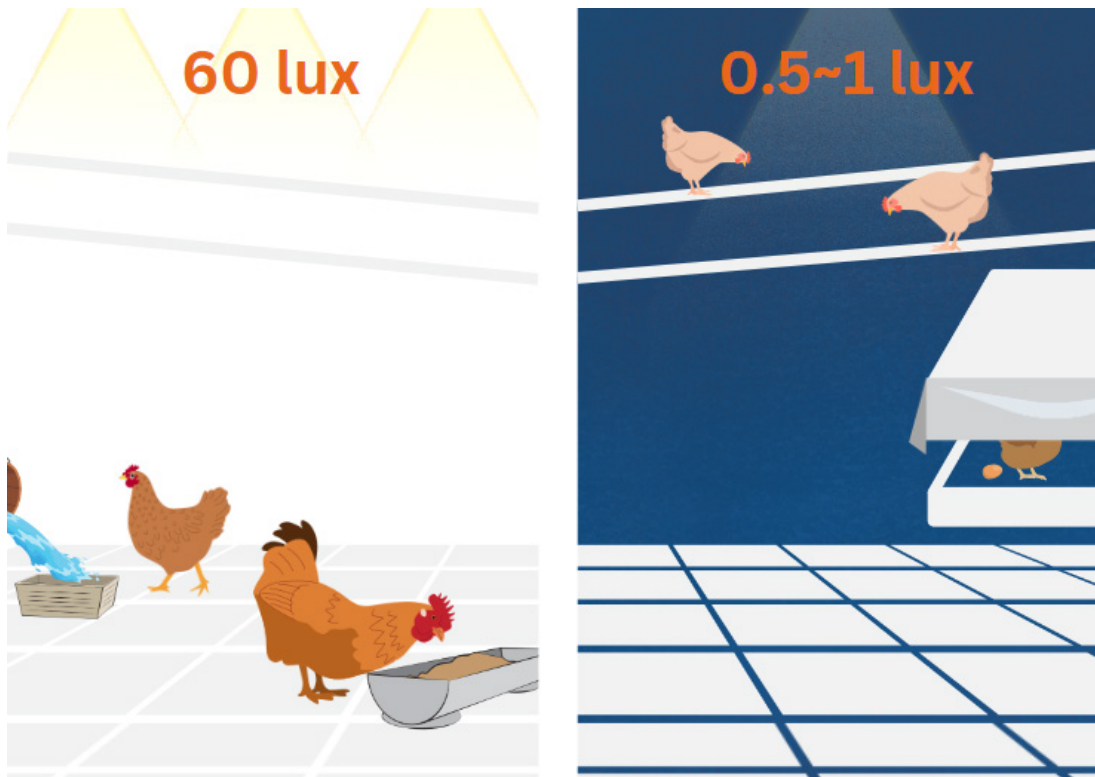
3.4.4. 조명

조명은 난상을 제외하고 사육장 내 모든 공간에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바닥의 특정 공간이 어두울 경우 해당 공간을 안락하게 느끼고 방란할 수 있습니다.

3.4.5. 채광

산란계는 먹고 마시고 바닥을 긁는 행동을 할 때 최소 60 Lux의 채광에서 행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산란을 하거나 쉼대 위에서 수면을 취할 때에는 0.5Lux~1 Lux를 선호합니다. 단, 산란계들이 저녁에 쉼대가 아닌 난상 안에서 수면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난상이 변으로 오염되는 일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4.6. 환기

환기에 있어 실내온도, 풍속, 채광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 사육장의 조명, 습도, 온도, 섭취된 사료와 물의 양 등을 매일 기록해주는 산란계 축사 전용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 없는 사육장이라면 농장주는 산란계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육공간 내 환경이 쾌적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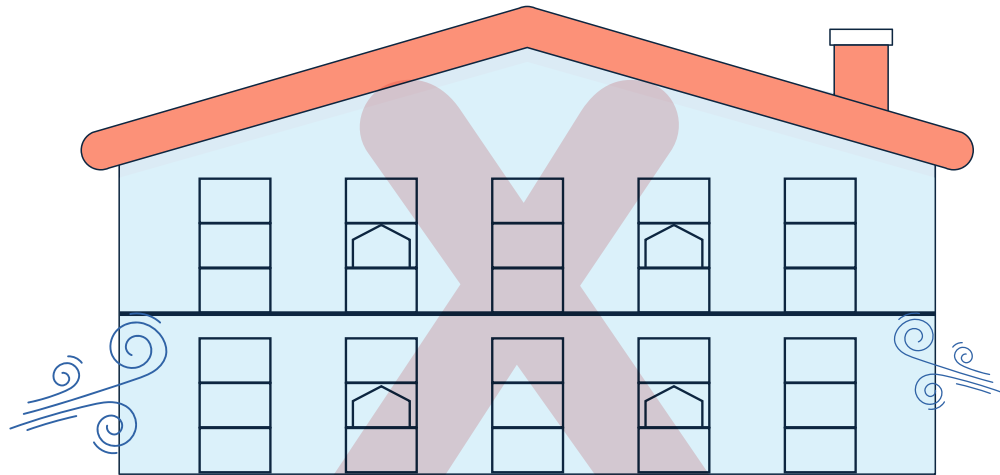
예를 들어, 동물들이 특정 공간을 선호하고 몰려있지는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외온도가 높고 실내 사육 공간에 환기가 잘 안될 경우에 깃털 뽑기 문제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외풍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합니다. 닭들은 외풍이 있는 곳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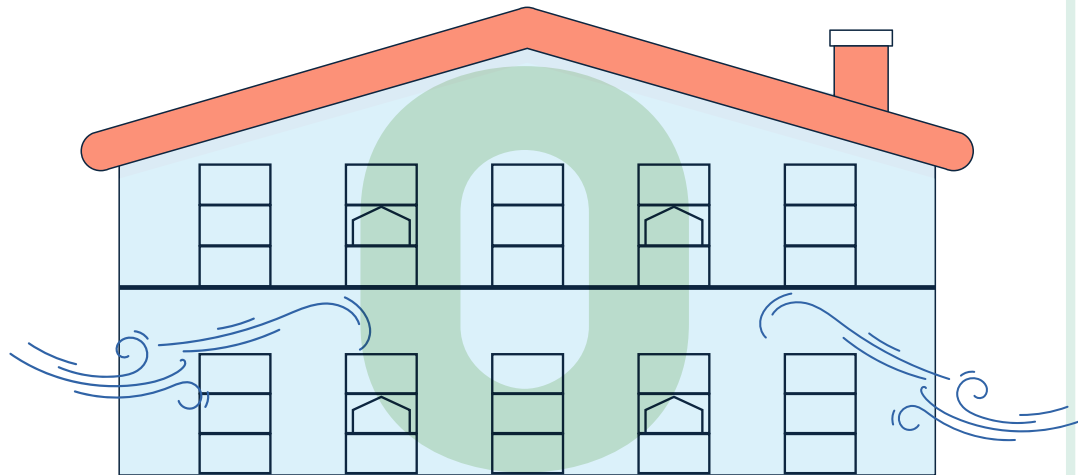
이상적인 실내 평사 사육공간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만약 실내 사육공간 온도가 28~30도이고 습도까지 높으면 닭들은 고온에 시달리게 되고 개구호흡(부리를 열고 숨을 쉰)을 하면서 날개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고온에 시달리면 계란껍질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산란율이 떨어지며 심각한 경우 폐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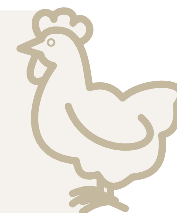
천장이 너무 낮아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충분히 실내에 골고루 퍼지지 않음

권장



시설과 천장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제공되어 실내의 중심까지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야 함

4.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 지속가능성이 정확히 무슨 뜻이요?

... 지속가능성이란 간단히 말해 생태계가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배앓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요.



... 지속가능성이 내 달걀 농장과 무슨 상관이 그리 있을까요?
세상이 당장 어덜게 되는 것도 아니고...

... 요새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더워진다고 하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구가 열이 나는데
그걸 15℃ 이내로 막자는 거예요.





... 좀 더워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요?

... 15°C가 작은 것 같아도,
사람 체온도 15°C 오르면 심각한 거니까요.
그래서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법과 제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나라들은 파리협정(2015년)을 통해 기후온난화를 1.5°C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2040년에는 석유, 석탄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요.



... 그런데 지구가 빙하기였다가 녹았다 하는 건
원래 자연스러운 거 아니요?

...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의 생활방식 때문에 지나치게 지구가
데워지고 있대요.



‘빙하기와 간빙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온도상승 아닐까?’ 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급격한 온도 상승은 인간의 책임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너무 빨리 높인다는 것이지요.

단지 더워지는 폭염 뿐만 아니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심해질 거라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 왜 온난화와 축산업을 연결하요?

... 축산업이 농업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좀 더 지속가능한 축산이 필요해요.



전체 온실가스의 26%, 농업 온실가스의 70% 정도는 식량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지금까지의 역할을 해 온 식량시스템이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약성을 낮추고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사 전환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5. 평사사육 전환 절차



... 5.1. 평사사육 계획하기

평사사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사 시설 업체와 상담하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평사사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시)

- ❖ 면적 대비 수용 가능 두수
- ❖ 규모에 적절한 시설
- ❖ 시설 교체 예산
- ❖ 시설 교체 기간 및 시기
- ❖ 변경되는 인력 규모
- ❖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 동물복지인증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접촉하거나, 협회를 통해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2. 평사사육 교육받기

평사사육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육 규모와 시설에 맞는 사육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란, 카니발리즘, 닭진드기 등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개입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농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사 품종과 도입 시설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맞춘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품종 또는 시설 회사 측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교육자료를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3. 시설 교체하기

계획한 시기와 기간에 맞게 시설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닭진드기 예방과 방역 등 시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합니다.

... 5.4. 동물복지인증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크게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교부 → 사후관리'의 과정을 통해 인증받게 됩니다.



동물복지인증 과정

서류심사

인증기관은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필요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결과통보

인증기관은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장 명의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증수수료

신청비(10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참고]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법률

동물보호법 제5장

제59~61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62~63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5~68조 인증 관리 관련 규정 (인증취소, 사후관리, 부정행위 금지, 인증승계 등)

제97조 벌칙 (부정 인증, 부정 표시, 부정 협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표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운송 및 도축장 규정 위반하고 표시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인증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심사, 인증취소, 사후관리 등 업무의 검역본부장 위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6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인증기관

제36조의7,10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11 인증 관리 관련 규정 (사후관리 및 인증승계 등)

※ 위 내용은 2024년 12월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법문과 개정되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 5.5. 평사사육 농장주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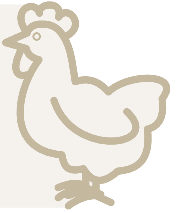
공통의 경험을 하는 평사사육 농장주들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킹하고, 바람직한 평사 농장 운영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최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 사진출처

2페이지 | freepik Pikaso AI, 8페이지 | 이혜원, 10페이지 | 이혜원, 12페이지 | 이혜원, 14페이지 | 이혜원, 15페이지 | 이혜원, 16페이지 | 이혜원, 17페이지 | 이혜원, 27페이지 | 이혜원, 33페이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79&menuNo=3000000019>

6. 참고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024년 6월 18일 조회.

<https://www.animal.go.kr/>

김태연. (2022, January 28).

<기고>EU ‘농장서 식탁까지 전락’ 주요 내용과 시사점.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6768>

법무부. (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시대의 新보호무역 관세 규제.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77/581452/artclView.do>

이도연. (2024).

7월에 지구촌 인구 81%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경험 [Newsmedia].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3052900009>

Climate Central. (2023, August 2).

Fingerprints of climate change during Earth’s hottest month.

<https://www.climatecentral.org/graphic/climate-shift-index-global-july-2023?graphicSet=July+2023+Average+CSI>

Ritchie, H., Rosado, P., & Roser, M. (2022).

Environmental Impacts of Food Production.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nvironmental-impacts-of-food>

M. Bestman et al.(2011) Huehner Signale. Roodbont Verlag

Wikipedia. 2024년 7월 3일 조회.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_%EA%B0%80%EB%8A%A5%EC%84%B1

A guide to the cage-free system for
laying hen farms

산란계 평사 전환 가이드북

산란계 농장, 평사사육에 대해 묻다



펴낸날 | 2024년 12월

펴낸곳 |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후 원 | Open Philanthropy

저 자 | 이해원, 박아름

사 진 | 동물자유연대, 이해원

디자인 | 김소라

MEMO